

미사일-드론 ‘가성비 전쟁’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Missiles and Drones: How to Prepare for the ‘Cost-Asymmetry War’

강건작 (예비역 육군 중장)

<초록>

오늘날의 전장은 저비용 자폭 드론과 고정밀 미사일을 혼합 발사하여 방공 요격 자산을 의도적으로 소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2026년 3월 대이란 전쟁에서 반복 확인된 이 ‘가성비 전쟁’ 논리는 한반도 방어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지닌다. 미사일 혼합공격의 본질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서 ‘방공 자산 소진’에 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 방공 수단과 전자전, 에너지 무기 등 새로운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 이를 위해 방공 자산의 분절된 구조를 넘어서는 한국형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AI 기반의 지능형 통합교전통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 할당하는 방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Abstract>

Modern battlefields are witnessing a new form of warfare that intentionally exhausts air defense assets by simultaneously launching a combination of low-cost one-way attack (OWA) drones and high-precision missiles. This ‘cost-asymmetry warfare’ logic, repeatedly confirmed in the Russia-Ukraine War, Middle East conflicts, and the March 2026 U.S.-Israeli strikes against Iran, holds direct implications for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rategic essence of hybrid drone-missile attacks lies beyond simple destruction; it centers on “magazine exhaustion.” To counter this emerging challenge, the solution lies in the efficient and integrated use of traditional air defense assets together with new capabilities such as electronic warfare and directed-energy weapons. Thi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multi-layered air defense system that overcomes the current fragmented structure of defense assets. Ultimately, this system should be realized through AI-based intelligent engagement control algorithms that automatically assign the most cost-effective interception method to each threat.

본 글에 게재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가성비 전쟁의 논리: 요격은 비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국제안보 담론에 ‘가성비 전쟁(cost-asmmetry warfare)’이라는 개념이 부상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Epic-Fury Operation,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응하여, 이란은 수많은 자폭 드론을 인접 미군기지와 도시, 정유시설 등에 발사했다. 대부분의 공격은 요격미사일로 방어하고 있지만 이런 대응 방식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샤헤드-136 드론 1기 가격은 대략 2만~5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1발당 약 4백만 달러에 달한다. 장대한 분노 작전 첫 100시간 동안 미국과 연합군이 소모한 요격미사일 비용만 약 37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수만 달러짜리 샤헤드 자폭 드론을 수백만 달러짜리 SM-2, 사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로 격추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표면적으로 이 시각은 맞다. 그러나 이 시각을 가성비 전쟁에서의 패배, 방공 요격 무용론으로 이어가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자폭 드론이 격추되지 않고 목표물에 명중했을 때의 피해를 비용 방정식에 포함시키면 계산은 역전된다. 발전소 하나가 파괴되면 복구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하며, 국민 생활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계량하기 어렵다. 핵심 지휘통제 시설이나 방공 레이더가 단 한발에 피격된다면 그 전략적 손실은 수백 발의 요격미사일 가격을 상회한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도의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요격의 경제성은 ‘요격미사일 가격대 드론 가격’이 아니라 ‘요격 비용 대 피격 시 총피해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효과적인 요격 방공체계 구축은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는 투자다. 문제는 방어에 얼마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수단을 어떻게 조합하여 쓸 것인가이다.

□ 혼합 운용의 전략적 본질: 파괴가 목적이 아니다

드론-미사일 혼합 발사 전술의 핵심은 표적 파괴에 있지 않다. 비축량 소진(magazine exhaustion)이 진짜 목표다. 저가 드론 대량 발사로 방어 측의 요격 자산을 먼저 소모 시킨 뒤, 이어지는 고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는 2단계 구조다. 우크라이나는 이 패턴을 수없이 경험했으며, 2024년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한 대규모 공습—드론 17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 탄도미사일 120여 기의 동시 혼합발사—에서도 이 전술의 진화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예멘 후티 반군도 동일한 방식으로 미 해군 이지스함의 SM-2 재고를 지속적으로 소모시켜 미 해군 내에서 탄약 보충 문제가 공개적 논쟁이 될 정도였다.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응하여 이란은 이 전술을 더욱 확대했다. 개전 초 48시간 동안 UAE에만 약 540기 이상의 사해드 드론을 발사하는 한편, 이스라엘·바레인·카타르·쿠웨이트와 상선을 향해서도 수백 기를 추가 공격했다. UAE는 이란의 공격에 90% 이상의 요격률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체 요격 자산의 20~40%를 소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격 성공률이 높아도 탄약 비축량 소진이라는 전략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실전에서 확인된 것이다.

북한이 서울 상공을 향해 이 전술을 구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이미 300mm 방사포, KN-23·24·25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함께 무기화한 자폭 드론을 보유하여 혼합 운용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수도권이 전선에서 불과 40~50km 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적 특성은 탐지-결심-요격에 허용되는 시간을 극도로 압박한다. 방공 자산의 빠른 소모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 지속능력 자체를 좌우하는 전략적 변수다.

□ 전자전의 가능성과 한계

요격미사일 소모를 줄이는 첫 번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전자전, 특히 재밍(jamming)¹과 스푸핑(spoofing)²이다. 드론의 통신 링크를 교란하거나 GPS 신호를 위조하여 드론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도시 환경에서의 적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재밍을 서울 상공에 광역으로 사용할 경우, 그 전파간섭은 병원의 의료 장비, 항공기의 항법 체계, 교통 신호시스템 등 민간의 전자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민간 피해, 즉 부수적 피해가 현실적인 우려다. 또한 아군 무선 네트워크(C4I)와의 상호 간섭 문제도 예상된다.

1) 재밍(Jamming)은 특정한 통신이나 레이더 시스템의 전파 신호를 방해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정보를 수신하거나 식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파 방해 기술이다.

2) 스푸핑(Spoofing)은 재밍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전파 방해 기술로, 단순히 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가짜 신호를 진짜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오작동하게 만드는 기만 기법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밍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드론의 유형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샤헤드-136과 같은 현대 자폭 드론은 원격 조종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들은 출발 전에 표적 좌표를 사전 입력받아 관성항법 또는 GPS 유도로 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통신 링크를 끊어도 드론은 계속 비행하며, GPS 재밍을 가해도 이미 입력된 마지막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비행하거나 대체 항법으로 전환한다. 스푸핑으로 드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시가지에서 드론이 불특정 지점에 낙하하면 민간 피해는 군사 표적 피해에 버금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전은 드론 대응의 보조수단으로서 유효하지만, 도시 방공의 주력 수단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드론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 에너지 무기의 잠재력과 제약

고출력 레이저(HEL)와 고출력 마이크로파(HPM)³는 발사 비용이 극히 낮고 탄약 재보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주목할 것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대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天光)’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무기이다. 20kW 출력으로 3km 내 드론을 격추할 수 있으며,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으로 요격미사일 대비 수십 만분의 1에 불과하다. 2025년 말 이스라엘은 로켓·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100kW급 고출력 아이언빔(Iron Beam)을 배치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고출력 실용화를 쫓는 동안 한국은 먼저 현장에 배치하여 실전 교훈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광의 전력화는 단순한 방산 성과를 넘어 한국의 방공 기술력이 세계 수준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천광의 현재 능력과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첫째, 유효 사거리가 3km 내외로 제한적이어서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위협에는 적용이 어렵다. 근거리 최후 수단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농무, 강우, 미세먼지 등이 레이저빔의 출력 손실을 유발하여 효과를 저감시킨다. 한국의 기상 특성상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제약이다. 셋째, 동시 다수 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군집 드론 수십

3) 고출력 레이저(HEL, High Energy Laser)는 아주 좁은 면적에 강력한 열에너지(레이저)를 집중시켜 목표물을 태우거나 뚫는 무기이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 High Power Microwave)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EMP)를 순간적으로 쏘아 반도체나 회로 기판을 과부하시켜 고장을 일으키는 무기이다. 레이저와 달리 부채꼴 모양으로 에너지를 방사한다.

기가 동시에 접근할 경우 한 기씩 조준해야 하는 레이저 무기의 특성상 대규모 공격에는 취약하다.

이에 대해 ‘고속 빔 스캐닝 기술’이나 ‘대표적 동시 조사 기술’이 현재 추진 중인 블록-2(30kW 기동형, 2030년 이전 개발), 블록-3(100kW급, 2030년 이후)에 적용되고 전력화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레이저 무기는 근거리 드론 위협에 대한 경제적 요격의 핵심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다. 에너지 무기는 현시점에서 기존 방공 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되, 기술 발전에 따라 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전통 방공 수단의 재발견과 가능성

드론 위협 앞에서 기존 방공체계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드론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비행고도가 낮으며 열 신호도 작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특성 때문에 기존의 근거리 방공 수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신궁, 천마, 비호, 천호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전통적 방공 무기들은 드론 요격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패트리어트, 천궁-II(M-SAM II), 사드(THAAD)와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드론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드론 대응에서 타격 체계만큼 중요한 것이 탐지 능력이다. 기존 방공레이더는 고속·고고도 표적을 상정하여 설계된 탓에, 저속·저고도·소형인 드론에 대해서는 탐지 한계를 노출해 왔다. 드론은 레이더 반사면적(RCS)이 극히 작아 조류나 기상현상과 혼동되기 쉽고, 도심의 고층 건물이나 지형을 이용하여 낮은 고도로 침투할 경우 기존 탐지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한국이 이 공백을 메울 국산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 기반 드론 탐지 레이더는 비행 패턴 분석을 통한 AI 신호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소형 드론과 조류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RCS 0.01m² 수준의 초소형 드론도 10km 내외 거리에서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다. 또한 ADD가 2025년 시험에 성공한 AI 기반 포토닉레이더⁴는 기존 RF 방식의 한계를

4) 포토닉 레이더(Photonic Radar)는 기존의 전파(RF) 기반 레이더 기술에 광학(Optics) 및 포토닉스(Photonics)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이다. 레이더 신호를 생성, 제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기 신호 대신 ‘빛(광신호)’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ADD는 2025년 4월,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야외 시연에서 수 km 밖의 소형드론 식별에 성공했다.

넘어 스텔스 표적도 탐지 가능한 차세대 탐지 기술이다. 이러한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핵심 방호 지역에 분산 배치하면 드론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탐지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저고도 탐지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전파 탐지기, 음향 탐지기, 탄도탄에 대비한 그린파인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 등 다양한 수단이 제각각 탐지 정보를 생성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상황인식으로 수렴되지 않으면 개별 탐지 능력의 합이 전체 방어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핵심은 분산된 탐지체계가 생성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단일한 공통작전상황도(COP) 위에 가시화하고, 이를 타격 수단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탐지와 타격 사이의 시간 격차를 최소화할수록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효과는 높아진다. 이 연계 능력이 바로 현대 방공의 실질적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 관점의 전환과 다층 방공체계 구축

국제사회가 드론-미사일 혼합 공격 위협에 뒤늦게 주목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유사한 복합 위협에 대한 대응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은 우리 방공 기획의 기본 전제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형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체계가 전력화되면 드론과 장사정포 위협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대응이 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드론은 장사정포보다 오히려 대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장사정포 포탄은 발사에서 착탄까지 수십 초에 불과하고 비행 궤적의 변화가 없어 요격창(Intercept Window)⁵이 극히 좁다. 반면 드론은 장거리를 천천히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 시간이 길고, 요격 기회가 복수로 존재한다. 발사 전 전자전이나 사이버 공격, 또는 원점 타격으로 무력화를 시도할 여지도 있다. 드론의 저비용이 공격 측에게 유리하듯, 드론의 저속·장시간 비행은 방어 측에도 기회를 준다.

사드, 패트리엇(PAC-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로 구성된 현재의 다층 방공 구조에 천마, 비호, 천호는 물론 장사정포요격체계, 에너지 무기, 레이저 체계를 추가하면 각 계층이 서로 다른 유형의

5) 요격창(Intercept Window)이란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포탄, 드론 등의 위협체를 성공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시간적 범위는 위협체를 탐지한 시점부터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까지 요격 무기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공간적 범위는 요격 미사일이나 레이저가 유효 사거리 내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물리적 구역'이다. 요격창이란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위협에 특화하여 대응하는 진정한 다층 방공체계가 완성된다. 고도·속도·유형별로 위협을 분류하고 가장 경제적인 수단을 할당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이원화 극복과 지능형 통합교전 통제체계 구축

체계와 무기는 갖추어지고 있다. 이제 핵심 과제는 이것들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지능형 교전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시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의 방공 지휘 책임은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저고도 국지방공(비호, 천마, 천호 등) 단거리 체계는 육군 방공부대가 담당하고, 중·고고도 전구 방공(패트리엇, 천궁, L-SAM)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운용한다. 역사적으로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1991년 공군으로 전군(轉軍)하면서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해군의 이지스 체계까지 구축되었다. 각 군의 방공 자산이 서로 다른 지휘 계통 아래 운용되다 보니, 혼합 공격 위협이 동시 전개될 때 표적 할당과 교전 우선순위 조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가 전력화되면 이는 육군 통제 아래 들어갈 것이고,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역시 육군 방공부대에 우선 배치되고 있다. 해군 이지스함에는 SM-2, SM-6가 도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드론 위협 대응은 육군 측에 편중되는 반면, 고고도 위협은 공군과 해군이 처리하는 분절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의 발전이다. 첫째, 탐지 자산의 통합 네트워크화다.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탄도미사일 조기경보), 해군의 이지스 레이더(고고도·장거리 미사일 탐지), 육군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드론·저고도), 전자광학·적외선 센서, 전파 탐지기 등 분산 배치된 다종 탐지 수단이 생성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단일 공통작전상황도(COP)에 가시화해야 한다. 탐지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그 정보가 통합상황도로 모이지 않으면 지휘관은 부분적 상황인식에 머물고, 타격 수단과의 연계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탐지와 타격 사이의 시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드론 대응의 핵심이다.

둘째, AI 기반 위협 식별 및 교전 우선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이 알고리즘은 위협의 유형·속도·방향·예상 표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요격 수단을 자동 할당하고, 고가 수단의 낭비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에는 PAC-3나 L-SAM을, 순항미사일에는 M-SAM을, 드론에는 천궁이나 에너지 무기를 자동 배당하는 방식이다.

셋째, 중앙 지휘통제 체계와 분산 자율교전 체계를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통제가 마비되더라도 개별 포대가 독립적으로 교전 결심을 할 수 있는 분산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체계 생존성을 높인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 과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우리 군의 C4I 체계 발전 수준과 방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수년 내 세계 수준의 ‘통합방공교전통제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한국의 방공정책 발전 방향

드론-미사일 혼합 운용이 가져온 ‘가성비 전쟁’은 분명히 방공 분야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복 불가능한 위협이 아니다. 무기 자체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개념과 체계의 통합이 핵심이다.

정책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를 제언할 수 있다.

단기(1~2년) : 현용 방공레이더의 저고도 드론 탐지 성능 보강을 추진한다. 전자전 장비의 도심 운용교리를 정립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추가 배치를 가속화한다. 전시에 요격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족분을 동맹국으로부터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보급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육군-공군-해군 다원화 방공지휘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합참 예하에 가칭 ‘합동 방공통제 조직’을 창설하여 교전 우선순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기(3~7년) : 한국형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예정대로 전력화하고, 드론 특화 요격 기능을 통합한다. 다층 방공 통합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하여 위협 자동 분류 및 대응 수단 할당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장기(7~10년) : AI 기반 자율교전 통제체계를 완성하여 인간의 결심 부담을 줄이고 대응 속도를 높인다. 분산 자율교전 능력을 전체 방공 자산에 부여하여 체계 생존성을 확보한다. 한국형 통합 방공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한미 연합 방공망과 연동한다.

한국은 유형은 달랐지만 그동안 북한으로부터의 혼합공격 위협에 대비해 왔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한국의 방공체계에 추가적인 도전이지만, 기존의 역량과 개념 위에 지능형 통합 능력을 더한다면 대응 불가능한 위협은 아니다. 다만, 전쟁 양상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군이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비해 주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 BIO



강건작

- 예비역 육군 중장
- 現) 법무법인 LAWVAX 고문, 육군대학 명예 교수
- 前)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개혁비서관
- 前) 제6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육군미래혁신TF장

Email: gunjark@naver.com

강건작 예비역 장군은 34년간 군에 재직하다가 육군 교육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중장으로 전역했다. 군 생활 동안 야전부대, 육군본부, 연합사, 국방부, 청와대 등의 여러 제대에서 핵심적 직책을 역임하면서, 야전작전, 국방정책, 위기관리, 국방개혁 등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전역 후는 각종 자문과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군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2025년 4월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을 다룬 『강군의 조건』을, 26년 1월에는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 방향을 다룬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을 발간했다. 현재는 군의 무기체계의 기본원리와 운용술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무기와 전략의 역사(가제)』를 탈고하고 발간 준비 중이다.

Gunjark Kang

- LTG (Ret.), ROKA
- (Current) Senior Advisor, Law Firm LAWVAX, Honorary Professor of Army College
- (Former) Direct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Center, National Security Office
- (Former) Secretary for Defense Reform, National Security Office
- (Former) Commander, ROKA VI Corps
- (Former) Commander, ROKA TRADOC / Director, Army Future Innovation TF

General Kang Geon-jark served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for 34 years and retired as Lieutenant General upon completing his final assignment as Commanding General of ROKA TRADOC. Throughout his career, he held key positions across field units, Army Headquarters,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 accumulating extensive experience in field operations, defense policy, crisis management, and defense reform. Since retirement, General Kang has been actively contributing to national security through advisory roles, lectures, and writing. In April 2025, he published *The Conditions of a Strong Military*, examin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Military and their solutions. In January 2026, he published *The Moment the State Functions*, addressing Korea's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He is currently finalizing his forthcoming book in Korean, *A History of Weapons and Strategy* (working title), exploring the principles and operational art of military weapons systems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